

사계절 담긴 따뜻한 밥상으로 나누는 삶



▶공지영의 북 콘서트 '시인의 밥상'이 오는 18일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사진은 지난 공연 모습. 왼쪽부터 이종민 전북대 교수, 공지영 작가, 박남준 시인, 메조 소프라노 진진. <©에스24>



공지영 에세이 '시인의 밥상' 북 콘서트

요리해 준 '버들치 시인' 박남준
성악가 진진 등 지리산 친구들과 총출동
18일 광주문예회관... 티켓 무료 예매



콩나물 국밥



진달래 화전

작가 공지영은 지난 1년여 간 '배 아픈 날 아침 엄마가 만져주는 보드라운 손길'같은 '밥상'을 받았다. 그녀에게 음식을 차려준 이는 지리산 해발 750m 심원마을에 사는 '사슴같은 버들치 시인' 박남준이다.

시인이 차려준 밥상 앞에는 오랜 친구들이 둘러앉았다. '괜찮아, 다 괜찮다'니 하는 내비도 교수 최도사, 만안니같은 거제의 J, 아그네스 발자같은 가수 진진 등이 함께였다.

남들과 '다르게 욕망하는' 지리산 친구들과 함께 한 밥상은 시인의 집, 무안, 거문도, 거제, 전주, 평창 등 전국으로 이어졌고 공지영은 그 기록을 에세이 '시인의 밥상'(한겨레 출판 간)으로 묶었다.

밥상을 받게 된 사연은 특이했다. "혼자 살던 내가 갑자기 죽어도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관값 200만원을 통장에 넣어둔" 버들치 시인이 심장 수술을 받아야했다. 수술비가 만만찮았지만 여러 출판사에서 산문집을 계약하자고 해도 시집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살다며 고집을 꺾지 않는 그에게 공지영이 말했다. "그럼 나한테 요리 좀 해주봐, 내가 슬개"라고 그리고 '혹시 오늘도 혼자 밥을 먹는, 모든 쓸쓸하고 서러운 이들을 위해' 책을 썼다.

일찍이 누군가 '안젤리나 졸리같은 외모에 박남준의 요리 솜씨를 가진 여자라면 내 당장 결혼하겠소'라 말했다는 버들치 시인의 요리 실력은 정평이 나 있다.

책에는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 제철 재료로 만든, 정성이 가득 담긴 요리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책에 등장하는 첫 음식은 '세간짜리 누워서 가난과 돌이 오순도순 살아가는 풍성한 풍경' 속 시인의 집에서 먹는 '푹이 있는 호박찜과 호박국'이다. 이어 찬물에 담긴 아삭한 콩나물이 포인트인 '콩나물국밥', 두그릇도 딱딱 먹게 만드는 '굴밥', 시인이 좋아하는 그릇을 만드는 무안 '도연가마'로 떠나 현지의 무안 낙지로 만든 '낙지 탕탕이'와 '연포탕' 등을 만날 수 있다. 여기에 진진의 '봄날은 간다'를 들으며 즐겼던 굽디

고음 '진달래 화전', 전주 카페 '새벽강'에서 먹은 굴전과 소합탕, 거제에서 담긴 김장 김치와 보쌈김치 등도 군침이 돈다.

또 '내 술상 위의 자산어보'로 유명한, 공작가의 표현에 따르면 '투덜이 스퍼퍼가 일관성 있게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문도 소설가 한창훈과 버들치 시인이 요리해준 향각국과 해초 비빔밥도 눈길을 끈다. 책에는 또 시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악양편지'에 있는 시인의 글과 지리산 친구 '숯팁'이 찍은 사진들도 함께 실렸다.

책을 읽다보면 그들의 밥상에 함께 끼어 앉아 음식을 먹고, 이야기도 듣고 싶어진다. 음식도 음식이지만, 그들이 함께 나누는 이야기는 따뜻하다.

책에 등장하는 이들이 '북콘서트'를 통해 '따뜻한 집밥 같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한다. 공지영 북 콘서트 '시인의 밥상-따뜻한 밥상을 통해 나누는 삶과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다. 3월 여수에서 시작해 부산·제주·대전 등 6개 도시를 도는 여정으로 광주는 오는 18일(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전북대 이종민 교수의 사회로 공지영, 박남준,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메조 소프라노 진진이 함께 이야기하고 음악을 나누는 무대다. 여기에 첼리스트 김경일, 피아니스트 김은영이 함께하며 광주 행사에는 강윤숙(재즈 피아노), 이상산(바이올린), 정명훈(첼로), 한수진(더블 베이스)씨가 참여한다. 책속에 등장하는 최도사 등도 함께한다. 콘서트에서는 과거와 지금, 음식과 사람, 거리와 광장, 나이 든다는 것과 밥상에 마주앉는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이번 무대는 광주문예회관 화우무대 기획 공연으로 마련됐다. 오는 5월 16일에는 '하림의 음악으로 떠나는 아프리카 여행-아프리카 오버랜드' 공연이 예정돼 있다.

티켓은 무료이며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면 된다. 문의 062-613-836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유·스퀘어 청년작가 박이슬 개인전



▶'감정을 읽다'

13일까지 금호갤러리

2017 유·스퀘어 청년작가 전시공모에 선정된 박이슬 작가가 금호갤러리에서 13일까지 '감정을 읽다'를 주제로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박 작가는 인간의 감정을 도자기의 색채와 곡선에 비유한 도자공예 작품을 선보인다.

작가는 도자기를 무엇을 담는 본래 기능에서 더 나아가 인간 감정을 담는 용기로 본다. 작품은 물결이 퍼져나가는 모양으로 다양하게 담은 색채가 특징이다.

물에 물감을 떨어뜨리고 도자기 표면을 달게 해 색감을 입히는 마블링 기법

을 사용했다. 시시각각 변하는 수많은 감정을 형상화하는 작업이다.

'감정을 읽다' 시리즈는 컵, 주전자, 그릇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했다. 특히 옆질러진 컵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표현한 작품이 눈길을 끈다. 아무 채색도 하지 않는 컵과 달리 물은 마블링 기법을 사용해 시선을 유도한다.

조선대 대학원 디자인학부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박씨는 2015년 첫번째 개인전 '상상공상'을 시작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대한민국문화대전 우수상(2016), 전남미술대전 특선, 경기미술대전 우수상 등 다수 상을 받았다. 문의 062-360-8436. /김홍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지역작가 지원 프로그램 진행

2016광주비엔날레에서 선보였던 지역작가 지원프로그램이 2017년에도 이어진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이 지역 밀착형 프로젝트 '월레회'의 세부 프로그램이었던 '작품포커스'와 '작가스크리닝'을 이달부터 10월까지 진행한다.

작가 2명을 선정해서 작품에 대한 연구 및 집단 토론, 초청 비평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작품포커스는 4월부터 6월까지 매월 한 차례 열린다.

첫 행사는 오는 27일 오후 3~5시 광주비엔날레 제문헌 로비에서 큐레이터, 작가, 미술 전공자, 일반시민 등 30~40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

작품포커스 작가 선정은 공모로 진행되며, 10일부터 24일까지 광주·전남 출

신이거나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가 대상이다. 포트폴리오와 약력, 작가노트를 우편 및 이메일(nuri.park@gwangjuennale.org)로 보내면 된다.

선정 작가는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광주비엔날레 아티스트 DB프로젝트 가입 작가를 우선순위로 선정할 계획이다.

작가스크리닝은 지역에서 접하기 힘든 영상작업과 독립영화 등을 함께 감상하고 작가와 대화하고 토론하는 자리이다. 7월부터 10월까지 총 4차례 마련될 예정이다.

재단은 지난 22년 간 축적된 국내외 네트워크와 현대미술에 대한 전문성을 활용해 지역 작가 창작과 국제 무대 진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문의 062-608-4224. /김홍희기자 kimyh@kwangju.co.kr

M갤러리 대관안내

▶ 기본대관기간 : 7일(일주일 단위)
▶ 실 전시 벽면 길이 : 약 46 M
▶ 개관시간 : (평일) 09:00~18:00 (토일) 10:00~17:00
▶ 신청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http://jinhan-shona.blog.me>
▶ 신청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http://jinhan-shona.blog.me>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062) 222-0072, 226-5800
(구, 카톨릭대학 뒤 관현악관 18)

아프리카 쇼나조각

아프리카 전시회
- 500여점 전시 -
▶ 장소: 세계조각·장식박물관 상설전시관

이농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7년 4월호

3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빛고을, 미디어아트를 켜다

- 세계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 어떤 빛깔일까?
- 생생한 즐거움, 미디어아트 플랫폼을 가다
- 빛의 도시 밝히는 광주의 미디어아티스트들

기획
영·호남합동원정등반대원 동계훈련 동행 르포
일본 야츠카다케 산군 오르며 등반의 의미 묻다

소문난 예술교육현장을 찾아서
세계 제일의 인상주의 컬렉션 미적 체험과 창작 이끄는 파리 오르세미술관

노중환의 꿈의 여행
우뚝한 고대문명의 불가사의의 이집트

예감이 만난 이 사람
코카콜라 애장품 기증 코카콜라 탄생지인 컬렉터 김용은 '포수 동반 10홀런' 기록 가진 KIA 인방비남 이흥구

1930년생 무인 간이역 보성 명봉역

예향 초대석

복서에서 오페라 주역으로 테너 조용갑

"꿈꾸는 이에게 날개 달아주고 싶어요"

대한민국 식물명인(사)
시간과 정성으로 숙성시킨 360년 증가의 손맛
전통 진장 명인 기순도

남도 시간 속을 걷다
1930년생 무인 간이역 보성 명봉역

배국남의 대중문화 X파일
대중문화상의 역할과 문제는? 흔들리는 수상의 공정성, 진정한 평가의 가치 훼손

문화 회개
창립 25주년, 동인지 발간한 '시와산문' 동인

트렌드 따라잡기
키덜트들의 레고홀릭 브릭의 세계를 아는가?

아트 뉴스 & 리뷰
오승운의 '꽃과 동수전' 오방정색에 담은 한국의 정신

가이싱 트레킹스 프로젝트
해강관광 수선도시의 상징, 여수 국동항

함평
함평천지 너른 등, 자연과 사람의 아름다움